



2010년 출판,
발행종수 줄고
부수는 증가

2010년 1년 동안 (사)대한출판문화협회를 통해 납본된 자료를 집계한 결과, 신간 도서의 발행 종수는 총 4만 291종(만화 포함)이며, 발행 부수는 1억 630만 9,626부로 나타났다.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발행 종수는 4.5% 감소하였고, 발행 부수는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당 평균 발행 부수는 2,639부로 집계되어 전년(2517부) 대비 4.8% 증가하였고, 권당 평균 정가는 1만 2,820원으로 전년(1만 2,829원) 대비 0.1% 감소하였으며, 평균 면수는 272쪽으로 전년(273쪽)보다 1페이지가 줄었다.



분야별 발행 종수 현황

2010년에 총 4만 291종이 발행되었다. 전체적으로 각 분야가 감소세를 면치 못하였는데, 학습참고서는 39.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는 수능 인터넷 방송의 확대에 따른 해당 교재의 발행 및 수요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진다. 다음으로 철학(15.3%), 기술과학(5.0%), 역사(2.3%)만이 증가하였고 다른 분야는 감소하였다. 가장 많이 감소한 분야는 만화분야(16.7%)로서 이는 만화 전문출판사의 폐업 및 수요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이밖에 종교(12.8%), 총류(12.7%), 사회과학(7.2%), 아동(6.7%), 문학(6.0%)순으로 감소하였다.

분야별 발행 부수 현황

발행 부수는 총 1억 630만 9626부로 집계되어 전년(1억 621만 4701부) 대비 0.1%의 증가를 보였다.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학습참고서(53.9%)이며, 철학(33.1%), 어학(20.8%), 기술과학(12.7%) 순으로 늘어났으며, 다른 분야는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는데, 만화분야(28.5%)가 가장 많은 감소를 하였고, 순수과학(19.8%), 종교(13.2%), 아동(10.5%), 문학(7.3%)순으로 감소하였다.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분야로는 아동으로 2,619만 9,626부가 발행되어 전체 발행부수의 24.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습참고(20.70%), 문학(16.25%), 사회과학(10.13%)순으로 집계되었다.

종당 평균 발행 부수 : 2639부, 평균 가격 : 1만 2820원

도서의 한 종당 평균 발행 부수는 2639부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다. 종당 평균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학습참고서(8761부)인데 전년대비 10.5% 증가하였고, 어학분야가 23.4%로 가장 많은 증가를 하였고, 철학 15.4%의 증가를 보였다. 반면 만화는 14.2% 감소하여 작년에 이어 계속 감소하는 분야가 되었으며, 순수과학이 19.7%로 가장 많은 감소를 나타내었다.

도서의 평균 정가는 1만 2820원으로 전년(1만 2829원) 대비 0.1%로 소폭 감소하였는 바, 최근 10여년 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하였다. 책값이 가장 비싼 분야는 기술과학(2만 1459 원) 분야인데 전년(2만 1776원)에 비해 1.5% 감소하였고, 가장 많은 감소를 보인 분야는 예술분야로서 전년(2만 3731원) 대비 21.6% 감소한 1만 8600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철학(11.9%), 학습참고(9.3%), 총류(7.4%), 어학(6.9%)순으로 감소하였고, 증가한 분야는 종교(6.5%), 아동(4.8%), 순수 과학(4.2%)등 소폭 상승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가장 저렴한 분야는 만화(4398원), 학습참고(9365원), 아동(9427원)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면수 : 272쪽

책 한 권당 평균 면수는 272쪽으로 전년도의 273쪽에 비해 한 페이지가 줄었다. 가장 두꺼운 분야는 평균 398쪽의 사회과학 분야, 다음으로 380쪽의 기술과학, 379쪽의 총류, 368쪽의 순수과학 분야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아동은 평균 112쪽으로 전체 분야 가운데 가장 얇은 분야로 나타났으며, 만화가 168쪽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도서 번역 출판 현황

2010년도 전체 발행종수(4만291종) 가운데 번역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26.7%(1만771종)로 전년도 27.6%(1만1681종)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해외 도서의 저작권 수입에 의한 국내 출판의 번역서 구성비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도서 발행 종수 중 번역서의 비중은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15%대에 머물렀으나, 번역출판 점유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2000년대 이후로는 30%에 육박할 만큼 대폭 증가하였다. 즉 지난 10년 사이 번역서 발행 종수가 5천종 대에서 1만 종대로 2배나 늘어나면서 그 비중도 자연스럽게 배가된 것이다. 학습참고서 등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출판 콘텐츠의 자급자족률이 매우 취약함을 보여준다. 또한 일본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된 번역서 비중도 두드러지고 있다. 분야별로는 문학(2324종), 만화(2248종), 아동(2137종), 사회과학(1274종)순으로 나타났으며, 언어권별로는 일본(4282종), 미국(3001종), 영국(990종), 프랑스(608종), 독일(464종), 중국(379종), 동유럽(143종), 러시아(123종), 이탈리아(109종)순으로 나타났다.

출판사별 발행 실적 현황

2010년 한 해 동안 대한출판문화협회를 경유해 국립중앙도서관에 신간을 납본(제출)한 출판사 수(2623사)를 실적별로 살펴보면, 5종 이하 발행사가 1369개사로 전체 출판사의 52.1%에 달하였다. 이어서 6~10종 발행사가 428개사(16.3%), 11~20종 발행사가 369개사(14.0%) 순으로 집계되었다. 2623개 납본 출판사 중 82.5%가 연간 20종 이하의 도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 실적이 있는 출판사의 연평균 발행 종수

2010년도 출판 현황 (단위 : 종, 부, 원, 면, %)

구분	신간 발행 종수				신간 발행 부수			
	2009년	2010년	증감률	점유율	2009년	2010년	증감률	점유율
총류	805	703	-12.7	1.74%	1,514,311	1,404,515	-7.3	1.32%
철학	915	1,055	15.3	2.62%	1,487,791	1,980,295	33.1	1.86%
종교	2,177	1,899	-12.8	4.71%	4,367,877	3,789,983	-13.2	3.57%
사회과학	6,483	6,017	-7.2	14.93%	10,937,175	10,765,405	-1.6	10.13%
순수과학	542	541	-0.2	1.34%	906,871	726,909	-19.8	0.68%
기술과학	3,054	3,206	5.0	7.96%	3,902,320	4,396,833	12.7	4.14%
예술	1,407	1,382	-1.8	3.43%	2,202,223	2,115,632	-3.9	1.99%
어학	1,660	1,625	-2.1	4.03%	3,590,778	4,337,766	20.8	4.08%
문학	8,718	8,192	-6.0	20.33%	18,643,635	17,279,904	-7.3	16.25%
역사	1,008	1,031	2.3	2.56%	1,825,727	1,828,818	0.2	1.72%
학습참고	1,803	2,512	39.3	6.23%	14,297,393	22,007,016	53.9	20.70%
아동	7,884	7,352	-6.7	18.25%	29,275,142	26,199,626	-10.5	24.64%
계	36,456	35,515	-2.6	92.95	1,243	96,832,702	4.2	
만화	5,735	4,776	-16.7	11.85%	13,263,458	9,476,924	-28.5	8.91%
총계	42,191	40,291	-4.5	100.00%	106,214,701	106,309,626	0.1	100.00%

(기간 : 2010. 1. 2. ~ 12. 31)

2010년도 출판 현황 (단위 : 종, 부, 원, 면, %)

(기간 : 2010. 1. 2 ~ 12. 31)

구분	판권·부수			판권·증가			판권·면수		
	2009년	2010년	증감률	2009년	2010년	증감률	2009년	2010년	증감률
총류	1,881	1,998	6.2	19,927	18,456	-7.4	418	379	-9.4
철학	1,626	1,877	15.4	18,231	16,061	-11.9	360	340	-5.6
종교	2,006	1,996	-0.5	12,677	13,497	6.5	350	334	-4.8
사회과학	1,687	1,789	6.1	18,795	19,108	1.7	402	398	-1.0
순수과학	1,673	1,344	-19.7	19,162	19,963	4.2	367	368	0.2
기술과학	1,278	1,371	7.3	21,776	21,459	-1.5	391	380	-2.9
예술	1,565	1,531	-2.2	23,731	18,600	-21.6	259	251	-3.1
어학	2,163	2,669	23.4	15,319	14,263	-6.9	327	293	-10.5
문학	2,139	2,109	-1.4	10,227	10,352	1.2	307	310	1.0
역사	1,811	1,774	-2.1	19,088	18,733	-1.9	387	365	-5.7
학습참고	7,930	8,761	10.5	10,328	9,365	-9.3	209	208	-0.6
아동	3,713	3,564	-4.0	8,992	9,427	4.8	99	112	13.1
계	2,550	2,727	6.9	14,148	13,965	-1.3	290	286	-1.3
만화	2,313	1,984	-14.2	4,441	4,309	-3.0	168	168	0.1
총계	2,517	2,639	4.8	12,829	12,820	-0.1	273	272	-0.5

연도별 도서 발행 종수 · 부수 현황

연도	발행·종수		발행·부수	
	총 발행 종수(종)	증감률(%)	총 발행 부수(부)	증감률(%)
1998	36,960	10.0	190,535,987	-10.3
1999	35,044	-5.1	112,506,184	-40.9
2000	34,961	-0.2	112,945,032	0.3
2001	34,279	-1.9	117,172,347	3.7
2002	36,185	5.5	117,499,547	-0.2
2003	35,371	-2.2	111,450,224	-5.1
2004	35,394	0.07	108,958,550	-2.3
2005	43,598	23.2	119,726,681	9.8
2006	45,521	4.4	113,139,627	-5.5
2007	41,094	-9.7	132,503,119	17.1
2008	43,099	4.9	106,515,675	-19.6
2009	42,191	-2.1	106,214,701	-0.3
2010	40,291	-4.5	106,309,626	0.1

는 약 18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2010년도 총 발행 종수 4만291종의 도서 출판을 전체 등록출판사의 7.4%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판사로 설립 신고(2009년말 기준 3만5191개사)를 해 놓고도 지난 2010년에 한 권의 책도 발행하지 않은 무실적 출판사 수는 전체의 92.5%에 해당하는 3만2568개사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무실적 출판사 증가현상은 1987년을 기점으로 해마다 누적되어 1988년에는 전체 출판사 중 50.7%를 기록하면서 절반을 넘기 시작했고, 이후 대체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